

남명 조식의 시문에 나타난 김해의 지역적 성격*

송희복**

|| 차례 ||

1. 시작하는 말 : 남명 조식의 김해 시절
2. 처사의 공간인 산해정(山海亭)을 소재로 한 시들
3. 신어산 기슭에 처사(處士)로서 아늑히 깃들이다
4. 김해 지역의 역사 유적 및 거주민의 삶의 현실
5. 김해 지역의 인적 교류의 관계망과 사족 지배층
6. 남는 말 : 조식의 시문(詩文)과 장소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남명 조식의 시문에 나타난 김해의 지역적 성격을 구명하기 위한 바를 큰 주제로 삼고, 세부적으로는 우선 산해정(山海亭)을 소재로 한 시에서 그의 현실적 거처 및 처사로서의 존재 방식과 태도 및 가치관의 양상을 밝히고, 또한 김해 지역의 역사 유적 및 거주민(백성)의 삶의 현실을 통해 그의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의 정도나, 그가 김해 지역의 인적 교류의 관계망이나 사족 지배층과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었는가 하는 양상을 밝혀보려고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논문의 체재는 처사의 공간인 산해정(山海亭)을 소재로 한 시들, 신어산 기슭에 처사(處士)로서 아늑히 깃들이다, 김해 지역의 역사 유적 및 거주민의 삶의 현실, 김해 지역의 인적 교류의 관계망과 사족 지배층 등으로 나누어 명명되어 있다. 끝으로 남는 말에 이르러서는 조식의 시문(詩文)과 장소감에 관하여 연구자의 의견을 덧붙였다.

주제어 : 조식, 김해, 산해정, 처사, 지역성, 지역 문화, 장소감

* 이 논문은 2015년도 진주교육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hbsong@cue.ac.kr

1. 시작하는 말 : 남명 조식의 김해 시절

16세기의 영남학파의 거두인 남명 조식(1501~1572)은 72년의 생애 중에서 15년을 지금의 경남 김해 지역에서 거주했다. 거주 기간이 30세(1530)에서 45세(1545)까지이니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겠다. 주지하듯이, 김해는 그의 처향(妻鄉)이다. 그의 아내 연고지가 김해라는 사실과 상관없이, 인조 연간에 편찬된 『산해정사우록』이나 숙종 28년에 덕천서원에서 간행된 『남명선생별집』(1702)을 바탕으로 작성된 연보에 의하면, 그가 김해에서 살았던 오랜 시절이 분명하게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¹⁾

조식이 처가가 있는 김해에 들어와서 신어산 아래의 탄동으로 거주하게 된 곡절에 관해서라면, 그의 행장(行狀)에 기록된 것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행장에는 김해의 처가가 부유했기 때문에 처가가 조식의 생계에 큰 의지가 되었다고 한다.²⁾ 심정적으로 볼 때 더 와 닿는 사연이 있다면, 그것은 벼슬하지 아니한 가난한 선비로서의 호구지책 내지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조식이 김해 탄동으로 이사온 해는 1530년이었다. 부친의 장례를 마치자 가세가 기울어 호구책이 막막했다. 당시 김해 처가 남평 조씨는 전라도에서 대대로 살다가 김해로 이주하여 넉넉한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었다. 조식이 30세 때 어머니를 모시고 처향 김해로 옮겨 온 것은 이러한 처가의 경제력에 의지하고자 한 생존 대책이었다.³⁾

그의 김해 시절은 어머니와 상당히 관계가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가세가 기울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처향 김해로 들어 와 처가의 경제력에 의지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얘기가 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고향 합천 삼가에 귀장(歸葬)하고 3년간의 시묘를 엄수했다.

1) 김낙진 외, 『조식의 생애와 사상』, 진주교육대학교, 진주문화교육연구원, 2001, 29-31면, 참고.

2) 같은 책, 23면, 참고.

3) 박기용, 『두류산 양당수를 예 들고 이제 보니』, 진주교육대학교, 진주문화교육연구원, 2002, 63면, 참고.

1548년, 그의 나이 48세에, 그는 시묘를 마치고 정식으로 김해 지역을 떠났다. 어머니에 대한 봉양 책임도 없어졌다는 게 김해 생활을 청산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된 것 같다. 요컨대 그의 김해 시절은 실제로 15년, 이주의 시종(始終)으로 보아선 18년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남명 조식의 시문에 나타난 김해의 지역적 성격을 구명하기 위한 바를 큰 주제로 삼고, 세부적으로는 우선 산해정(山海亭)을 소재로 한 시에서 자신의 현실적 거처 및 처사로서의 존재 방식과 태도 및 가치관의 양상을 밝힐 것이며, 또한 김해 지역의 역사 유적 및 거주민(백성)의 삶의 현실을 통해 그의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의 정도나, 그가 김해 지역의 인적 교류의 관계망이나 사족 지배층과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었는가를 밝혀보려고 한다.

2. 처사의 공간인 산해정(山海亭)을 소재로 한 시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우리 시대의 국학자로 저명한 이우성이 신산서원 중건기(重建記)를 쓸 때 언급한 바 있었거니와, 산해정(山海亭)은 ‘남명 선생이 일찍이 김해부 동쪽의 신어산에 장수와 강학의 처소로서 열었던(南冥先生當就金海府東之神魚山開藏修講學之所)’⁴⁾ 곳이다. 즉, 조식이 1530년에 김해에 들어 와서 산해정을 세워 문헌을 소장하고 심신을 수양하고 학문을 강의하였다.

하지만, 이 건물은 조식의 사후에 우여곡절의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가 몰한지 6년 후인 1578년에 산해정 동쪽에 당시의 김해부사와 향인들이 신산서원을 건립했으나 임진왜란 때 왜군들에 의해 소실된다. 1608년에 지역의 선비들에 의해 산해정 구지(舊址)에 신산서원을 다시 세운다. 광해군 때는 이것이 사액(賜額)의 영광을 얻었지만, 1871년에 대원군에 의해 훼손되고, 다시금 1890년에 중건되었다. 그 후 20세기에 산해정이 몇 차례

4) 이병태, 「신산서원의 복원문헌」, 『김해문화』, 제17집, 김해문화원, 1999, 30면.

중수의 과정을 거치고, 또 신산서원이 복원됨으로써 김해시 대동면 신어산 기슭 아래에 지금 오늘의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다.

남명 조식이 남긴 시 가운데 산해정에서 쓴 시는 모두 일곱 편이며, 이 가운데서 ‘산해정’이란 낱말이 표제로 드러난 경우는 네 편이다. 그만큼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산해정이 차지하는 의미는 결코 경시될 수 없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산해정은, 바다를 앞에 두고 산을 등진 형상을 하고 있는, 이른바 처사의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예서 십리 밝은 수로왕이 강림한 곳이라네.
긴 낙동강의 물속에 흐르는 정한은 깊구나.
구름이야 아득한 대마도 위로 향해 떠가고,
산은 비취색 푸르른 계림으로 뻗어 있어라.

十里降王界
長江流恨深
雲浮黃馬島
山導翠鷄林

-山海亭偶吟

조식이 자신의 거처인 산해정에서 우연히 읊조렸다는 시다. 시의 내용은 산해정의 공간 지리의 배경인 장소성을 표현한 것이다. 이 4행의 시에서 물리적인 장소성을 벗어나 장소감의 간헐성을 보이는 것은 제2행이다. 장강유한심(長江流恨深). 여기에서의 장강은 낙동강을 가리킨다. 낙동강이 흐르는 데는 한이 깊다는 것. 기존의 역본 모두는 한(恨)을 일반적인 의미의 한(恨)으로 풀이하였다. 여기에서의 한은 한이 아니다. 우리는 한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원한과 포함을 떠올린다. 현실에 대한 부정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다. 전체적인 시상의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 시에서의 한은 낙동강의 언저리에서 장구한 세월에 걸쳐 살아온 백성들의 삶의 애환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온전하지는 못해도 그 한은 정한(情恨)이라고 보는 것이 의미의 실상에 가깝

다. 김수로왕이 가야국을 개국한 이래, 수많은 민초들이 낙동강 주변에서 살아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야 인과의 관계가 성립된다. 또 멀리는 신라의 옛 터전이 있었고, 더 멀리는 그가 살던 시대의 왜국이 있음을 말한다.

이 친구는 외로워도 외롭지 않으리라,
수염 난 늙은 소나무 옆에 있으니.
풍상이 섞어 친 날을 굳이 기다리지 말라,
부드러운 바람결에도 보는 이 참모습이여.

此君孤不孤
髯叟崩爲隣
莫待風霜看
猗猗這見眞

—種竹山海亭

조식이 산해정에서 대나무를 심으면서 쓴 시다. 제1행의 ‘차군(此君)’은 왕희지가 대나무를 가리켜 ‘이 친구’라고 부른 데서 유래하고 있다. 제2행의 ‘염수(髯叟)’는 수염 난 노인을 가리키지만, 명나라의 학자 팽대익이 온갖 유서를 모아 엮은 책인 『산당사고(山堂肆考)』에 따르면 소나무를 비유한 말이다.⁵⁾ 제4행의 ‘의의(猗猗)하다’는 기존의 역본에서 ‘싱싱하다’나 ‘끗끗하다’로 풀이하고 있으나 사실상 오역이라고 하겠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 낱말의 뜻을 ‘바람 소리가 부드럽다’로 풀고 있다. 그래야만이 제3행과의 대조의 묘(妙)가 수사적으로 잘 이루어진다. 필자가 ‘의의(猗猗)’를 두고 ‘부드러운 바람결’로 풀이한 것도 이와 같은 문맥에서 연유한 것이다.

매화나무 너머로 봄기운이 그윽이 감돌고,

5) 허경진 옮김, 『남명 조식 시선』, 평민사, 2008, 20면, 참고.

가지마다 새 우짖는 소리는 한결 정다워라.
산해정의 뒷산에 걸린 달이 이리도 환한데,
그대와 나, 어떡하면 함께 만날 수 있으리.

梅上春候動
枝間鳥語溫
海亭山月白
何以座吾君

—寄叔安

이 시의 제목은 ‘기숙안(寄叔安)’이다. 뜻은 ‘숙안에게’이며, 작자인 조식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숙안은 박흔(朴忻)의 자이다. 1995년에 『남명집』을 편역한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에서는 박흔을 가리켜 애초에 미상의 인물이라고 했다. 그 후의 박기용에 의하면, 박흔은 합천 ‘삼가 토동에 살던’ 6) 무명의 선비임이 밝혀진 바 있다. 즉, 그는 조식의 고향 친구이다. 인용된 시는 다름이 아니라 벗에게 보낸 편지글 형식의 시다. 언제 한 번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멀리 있는 벗에게 그리움의 뜻을 전하고 있다. 조식은 산해정에서 주로 심신을 닦거나 독서를 일삼거나 했던 것 같다. 여기저기에서 벗들이 찾아 와 학문과 세상에 관한 담론은 즐겼어도, 제자들이 번잡하게 들락날락거리지는 않았다. 찾아온 제자래야 정인홍 정도가 아닌가 한다. 산해정은 실로 한가로이 한적한 처소였던 셈이다.

산해정은 배산임수의 복지이다. 집 앞에는 멀지 아니한 곳에 낙동강의 한 줄기가 흐르고 더 멀리는 바닷물이 앞에 창망히 놓여 있다. 거처인 산해정 뒤는 김해 지역의 명산인 신어산을 배경으로 한다. 조식은 이 좋은 조화로운 공간지리 속에서 한 동안 살아갔던 것이다.

6) 박기용, 앞의 책, 75면.

3. 신어산 기슭에 처사(處士)로서 아늑히 깃들이다

주로 조류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 살거나, 혹은 사람이 살 곳에 자리를 잡거나 하는 것을 두고 ‘깃들이다’라는 낱말을 사용한다. 남명 조식은 32세 되던 해 서울에 있던 집을 매부 이공량에게 부탁하고 처향인 김해로 내려와, 마침내 신어산 기슭에 처사(處士)로서 깃들이었다. 조식의 저서인 『남명집』에는 유학에 대한 학문적인 내용의 글보다는 문학적인 감성의 글이 상대적으로 많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남명 조식의 문학사상에 관한 한 고찰」(2002)이란 표제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조식의 문학사상적인 방향성을, 출처관(出處觀)·애민의식·낙원지향성이란 세 갈래의 큰 줄기를 나눈 적이 있다.

출처관이란, 벼슬길에 나아가거나 나아가지 않거나 하는 이유 및 소신을 분명히 밝히는 것. 말하자면, 출세와 처세에 관한 개인적인 가치의 표명이다. 주지하듯이, 조식도 종생토록 자신을 처사(處士)로 자처해 마지않았다. 그는 벼슬(출세)을 거부하면서 초야에 묻혀 야인으로 살아갔다. 요즈음 식의 표현대로라면, 어떠한 공직에도 몸을 담지 아니하고 학문이나 실천에 전념한 철저한 재야인사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출처관은 자신의 비평문인 「엄광론」에서 드러나고 있다. 엄광(嚴光)은 후한 시대에 황제가 출세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깊은 산중에 은거해 낚시질이나 하면서 생을 마쳤던 사람이다. 조식은 이 엄광을 가리켜 ‘성인의 도를 추구한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⁷⁾

조식이 살던 시대에 영남 남부 지역의 사림에선 ‘삼고(三高)’라는 말이 있었다. 김해의 조식과 밀양의 신계성(申季誠)과 함천의 이희안(李希顔)을 두고 가리키는 말이다. 삼고란,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세 사람의 고결한 처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식이 신계성에게 보낸 사신(私信)은 모두 5편이 현전하고 있는데, 학문적인 교감을 주고받았다기보다는 사사로운 신변잡기의

7) 송희복, 「남명 조식의 문학사상에 관한 한 고찰」, 진주교대 부설 진주문화권연구소, 『진주문화』, 제16집, 2002, 38면, 참고.

사소한 정답이 적잖이 드러나 있다. 두 사람의 편지글에는 정치적인 담론이 전혀 없다. 세상을 등진 처사들이 막역한 지음(知音)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일단을 남기고 있을 따름이다. 조식이 자신보다 세 살 아래의 나이임에도 허교한 이희안 역시 이조참판의 반열에 오른 아버지와 달리 향리에서 처사로 살았다.

조식이 이희안에게 보낸 시가 있다. 「제황강정사(題黃江亭舍)」, 즉 황강의 정사에 부처, 라는 제목의 시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황강’이란 뜻은 이희안의 호인 동시에 합천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강의 이름이다. 뜻겹침의 의미가 있다. 황강변의 정자에 앉아 두 사람의 교분을 나누었으리라. 길가 무명의 풀잎처럼 죽어가더라도 산의 구름처럼 자유롭게 살아가자는 것, 그것은 강물의 흐름처럼 유연한 삶이며, 이 유연한 삶은 세속의 걸림돌을 비껴 가는 삶, 궁극적으로 처사로서의 자유로운 삶 그 자체라고 하겠다.

길가의 풀은 이름도 없이 죽어가고,
산의 구름은 제멋대로 살아나누나.
황강이 끊임없이 한스럽게 흘러가도,
돌부리와는 서로 다투지 않는다네.

路草無名死
山雲恣意生
江流無限恨
不與石頭爭

—題黃江亭舍

그런데 이희안이 쉼 넘은 늘그막에 고령 현감에 체수되어 잠시 공무를 수행한 바 있었다. 물론 경상도 관찰사와 뜻이 맞지 않아 이내 사직을 했다. 조식이 이희안이 환로에 나아간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는 구전 설화가 합천군에 전해지고 있는 사실을 정우락(현, 경북대 교수)이 채록을 하여 공개한 바 있다. 조식이 이희안의 집을 지나갈 때 그가 벼슬을 한다는 이유로 부채를

가리고 외면하면서 지나갔다고 한다. 그래도 이희안이 별세했을 때는 조식이 상여줄을 메었을 만큼 두 사람의 우의가 두터웠다고 전해지고 있다.⁸⁾

조식은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김해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사림(士林)의 후배에 해당하는 정유길(鄭惟吉)을 만났다. 그가 김해에서 처음 만날 때의 정유길은 20대 초반이었다. 조식보다 나이가 14년이 젊었다. 두 사람은 서울에서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서울이라는 지리적인 연고 때문에 서로 통하는 바가 있었으리라고 본다.

정유길은 그 시대에 영의정을 지낸 정광필(鄭光弼)의 손자였다. 1537년, 정광필이 간신 김안로의 무고로 75세의 나이에 김해로 유배되었으나, 이듬해에 김안로가 사사됨으로써 풀려났다. 정광필이 김해에 유배되었을 때 정유길은 조부를 혼정신성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정유길이 다시 서울로 돌아갈 때 조식은 그에게 이별의 시 한 편을 남긴다.

그대는 북녘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산자고새 같은 나, 남녘에서 살리라.
정자의 이름을 산해(山海)라고 정했더니,
바닷가 두루미 가지런히 뜰에 오누나.

君能還冀北
山鷓鴣吾南
名亭曰山海
海鶴來庭參

—贈鄭判書惟吉

조식은 정유길을 판서(判書)라고 했다. 이때의 정유길은 과거 시험을 보기 이전이었다. 아마도 판서는 전도가 유망한 젊은 선비를 높여 부르는 말이 아닌가 한다. 실제로 먼 훗날에 정유길은 좌의정의 반열에까지 오른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 정치권력으로 향하는 길이라면, 자신이 끝내 머무는 남쪽은 자

8) 정우락, 『남명문학의 철학적 접근』, 박이정, 1998, 359면, 참고

연 속에서 탈속의 자유를 누리는 공간이다. 그의 출처관이 대조적으로 분명히 나타난 시라고 하겠다. 유배된 조부와 함께 상경한 정유길은 1538년인 이 해에 과거에 도전해 장원급제의 영광을 얻는다.

조식은 김해 산해정에서 거주할 때부터 분명한 출처관을 가지고 있었다. 정유길에게 준 인용한 시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겠다. 조식은 김해 시절 이후에도 일관된 출처관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강화되는 감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출처관에 대한 조식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다. 그리고 그는 직설적이고 직정적인 성정의 소유자인 듯하다. 세칭 ‘단성소’에서 보듯이 그는 벼슬을 강요한 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하면서 칼날같이 예리한 사직 상소를 올리는 것은 자신의 뜻을 위해 목숨마저 초개처럼 버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조식은 주지하듯이 지리산을 유람한 후 「유두류록」을 쓴 바 있었다. 기행적 산문의 명문으로 후세에 남겨진 이 글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 지리산 암벽에 이름이 새겨진 것들을 보고 썩지 않는 곳에 이름을 새겨 영원히 전하려 하는 것은 ‘날아가 버린 새의 그림자만도 못한(不如飛鳥之影)’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뒤집어 놓고 보면, 후세 사관(史官)의 책에 기록되고 넓은 땅 위의 사람들의 입으로 새겨져야 하는 이름이 아니어든 벼슬을 하여 이름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인 것이다.⁹⁾

조식이 살던 시대는 비로소 훈구파를 몰아내고 사림파가 정치권력을 장악 하던 시대였다. 하지만 이 과정이 있기까지 치절한 피의 대가가 있었다. 네 차례에 걸친 사화(士禍)가 그것이다. 이러한 사화의 경험이 재야의 선비들로 하여금 현실정치에 참여하지 않게 하려는 경향을 불러일으켰다.

조식에게는 세속적인 정치권력의 장으로 출(出)하는 것이 때로 성명과 가문을 보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 될지도 모른다. 나아감의 행위가 ‘날아가 버린 새의 그림자만도 못한(不如飛鳥之影)’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는 산림에 처(處)해 수신을 닦고 학문에 정진하거나 후진에 강학을 베푸는 일만 못하다는 판단에 스스로 이른 것이다.

9) 송희복, 앞의 논문, 43면.

4. 김해 지역의 역사 유적 및 거주민의 삶의 현실

그다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조식의 시문 가운데 김해 지역의 역사(문화) 유적명이 남아 있는 것은 구암사, 명월사, 함허정 등이다. 그나마 이것들도 그 시대의 모습에서 많이 변형되어 존속하고 있거나,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 것들이다. 그의 오언시 「제구암사(題龜巖寺)」는 내용이 독특하다. 한시의 일반적인 글쓰기 관습으로부터 거리를 둔 경우가 아닌가 한다. 다음에 인용한 역본은 『남명집』을 편역한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의 역본이다.

동쪽 고개 위의 소나무로 지은
불당(佛堂)에 사람들이 절을 하누나.
나 남명은 이미 늙었기에,
애오라지 산 속의 지초(芝草)를 묻는다.¹⁰⁾

東嶺松爲木
佛堂人拜之
南冥吾老矣
聊以問山芝

—題龜巖寺

구암사(題龜巖寺)에 부치다, 라는 의미의 제목이다. 근래에 발간된 『역주 김해읍지』에 따르면, 구암사는 조식이 살던 시대만 해도 규모가 큰 절이었다. 조선시대에 절을 혁파할 때, 이 절 역시 혁파의 대상이 되었지만 명맥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김해읍지』가 만들어질 때 구암사는 구암암(龜巖庵)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지금은 영구암(靈龜庵)이라고 불린

10) 조식 지음,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편역, 『남명집』, 이론과실천, 1995, 38면.

다. 읍지에 의하면, 구암암은 신어산 서림(西林) 주산(主山)에 있으며, 경내에 맑고 깨끗한 우물이 있고, 맑은 날에는 대마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했다.¹¹⁾

조식의 시 내용은 범속하다. 동쪽 고개의 소나무 숲에서 얻은 목재로 지어진 구암사 대웅전에 사람들이 모여 불상에 절을 한다. 아마도 무병장수를 비는 것 같다. 하지만 나 남명 조식은 (불과 40대이지만 그 시대의 관점에서는) 이미 늙었기에 빌어봤자 그다지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제4행의 ‘요이문산지’ 할 따름이라는 것. 역본에 따르면, 애오라지 산 속의 지초(芝草)를 묻는다는 것. 원문의 산지(山芝)란, 산 속의 지초이다. 이것은 말려서 약용으로 쓰이는 영지버섯이다. 불로초과에 속하는 버섯류이다. 조식에게는 이것이 약효가 대단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4행 원문의 요이문(聊以問)이란 무엇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에 의지해 해결하려고 한다.’의 뜻이 아닐까 한다. 그러니까 난 늙었으니 부처님이 아니라 영지버섯에 의지해 무병장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라는 뜻일 게다.

조식의 「제구암사(題龜巖寺)」는 그가 살던 시대의 김해 민간 풍속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시다. 이와 관련해 더 뚜렷한 사료적인 가치가 있는 시가 있다면, 다음에 인용될 「분성에서 보리타작하는 소리를 듣고(在盆城聞打麥聲)」이다. 분성(盆城)은 김해의 옛 이름이다.

한낮이 지나자 햇볕에 취한 듯 짙은데,
수많은 버들가지에 바람 한 번 지나누나.
숨어사는 사람 전양자(全陽子)를 읽을 줄 아는데,
그래도 공중에서 울리는 보리타작 소리 듣는다.¹²⁾

過午陽和醉似濃
萬條楊柳一邊風
幽人解讀全陽子
打麥猶聞聲在空

11) 민공기 역주, 『역주 김해읍지』, 도서출판 누리, 2014, 154면, 참고.

12) 조식 지음, 앞의 책, 81-82면.

—在盆城聞打麥聲

조식은 책만 읽었던 게 아니라 농번기에 이웃 농부들이 바지런히 농사짓는 소리도 들었다. 전양자(全陽子)는 ‘전양자’라는 호를 가진—중국 송나라 때의 학자였던—유염(兪琰)이 지은 책의 이름이다. 역학과 도가의 학문에 정통한 유염이 유가적인 전통의 학자가 아니었듯이, 조식 자신도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유가적인 관인으로서의 선비가 아님을 넉넉히 밝히고 있다. 그는 조용한 곳인 산해정에 숨어사는 사람, 즉 유인(幽人)이다.

김해 지역에도 조선시대에 누정(樓亭)이 있었다. 한 세기 전후로 읍성이 해체되면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때 김해 향촌의 상징적인 건축물이었던 연자루(燕子樓)와 함허정(涵虛亭)이 그것이다. 이에 관한 기문의 총량은 누대에 걸쳐 결코 적지 않다. 함허정의 기문(記文)은 탁영 김일손(金翺孫)의 것이 유명하다. 그는 같은 해에 발생한 정치적인 변란인 무오사화(1498)가 일어나기 직전에 김해 선영과 가까운 농막(農幕)에서 조상의 묘를 살피고 있었다. 이때 김해부사 최윤신이 함허정을 건립하면서 기문을 써줄 것을 부탁하였다. 자신의 죽음을 재촉할 횡액의 운명을 앞에 두고 쓴 글이 그의 「함허정기」이다. 그는 최윤신이 ‘향국취(鄉國倅)’라는 이유 때문에 기문의 청탁을 수락하였다. 여기에서 향국취란 최윤신이 자신의 상재지향(桑梓之鄉 : 조상의 고향)인 김해 지역의 수령(부사)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함허란, 물에 비친 하늘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중국 철학에서는, 음양을 낳는 기(氣)의 본체를 달리 이르는 말로 태허(太虛), 대허(大虛)란 용어가 두루 사용되곤 한다. 매우 철학적인 명칭인 함허. 김일손의 「함허정기」는 ‘물의 본성은 두루 흘러 막힘이 없어서 체(體)가 본래 허하고 허한 까닭에 사물을 포용할 수 있으나, 한번 마음에 그릇된 마음이라도 생기면 본래 체의 허함을 잃어버려서 모든 사물의 용(用)에 어긋나는 것’¹³⁾이라는 심오한 생각을 담은 일세의 명문이었다. 이 글을 통해 연산군에 의해 요절한 김일손의 성리학적인 교양을 살펴볼 수가 있다.

13) 민공기 역주, 앞의 책, 178면, 참고.

김일손에 이어 거의 반 세기만에 「함허정기」를 쓴 이가 바로 조식이다. 1547년이면 그가 김해 생활을 정리할 무렵이다. 김해부사 김수문(金秀文)이 함허정을 중수하던 중에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겼던 것 같다. 그가 쓴 기문은 김수문에 대한 송덕(頌德)의 감회라고 할 수 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태허(太虛)보다 옹골찬 것이 없으니, 속이 비어 있으면 길러 순백(純白)의 상태로 만들어 안을 방정히 하고 밖을 제압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이치를 본 자가 정자의 편액을 쓰고 그런 소문을 들은 자가 정자를 지었던 것인가? (……) 김공(金公)은 무예로 발신하였으나 유자(儒者) 못지 않게 학문을 깊이 연구하였다. ‘정치에서는’ 뛰어난 수단을 발휘해 이리저리 궁리를 하면서도 작은 손가락으로 세상사를 헤아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 (……) 슬프도다! 그 사람은 떠나고 그가 행한 정치 또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으니, 오직 그 마음에 품었던 생각의 자취만이 여기에 남아 있다. 훗날 이 정자에 오르는 이는 마땅히 건물로써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됨으로써 (그를-인용자)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다.¹⁴⁾

조식이 찬양한 김해부사 김수문은 누구인가? 그 자신 보다 다섯 살 아래의 직업관인(職業官人)이다. 비록 무인이지만 학문(유학)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동시대에 남북으로 침략해오는 왜인과 호인을 여러 차례 격파하여 국방에 큰 공을 세웠다. 특히 을묘왜변(1555) 때는 제주목사로서 왜구를 대파하여 지금의 서울시장인 한성부 관윤으로까지 특진하였다. 조식은 「함허정」이란 제목의 7언8행시를 짓기도 하였다. 마지막 결구(結句)는 다음과 같다.

잔락(殘落)의 생애여
겨울날에 줄아져
지는 물이로다.

가슴의 여한(餘恨)을 장차

14) 조식 지음, 앞의 책, 312-313면.

문으려고 하자면

술잔을 단숨에
길게 당기리라.

殘落生涯寒落水
欲將埋根引杯長

—涵虛亭(부분)

이 시는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장소성에 관한 묘사보다는 공간에 투사된 시인의 감정이 우선되고 있다. 그 시대의 작품으로서는 매우 독특한 감수성의 제영시(題詠詩)라고 할 수 있다. 제영시는 표제로 삼은 특정의 사물을 문학적인 표현의 대상으로 삼은 시를 말한다.

남명 조식의 시문 가운데 거주민의 삶의 현실에 관한 것이 있다면, 앞서 인용한 시편 「분성에서 보리타작하는 소리를 듣고」와 같은 유의 작품이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의 대표적인 시가 주지하듯이 「민암부(民岳賦)」와 같은 유의 저항시인데, 이에 대한 비평적인 논의는 본고에선 유보될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서 백성 민(民) 자의 민이 김해의 거주민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5. 김해 지역의 인적 교류의 관계망과 사족 지배층

남명 조식이 김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때 지역의 사족과 큰 교분이 없었던 것 같다. 또한 그의 사후에 작성된 문하생 인명록을 보면 유독 김해 지역의 선비들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젊은 선비들을 불러 가르침을 베푸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김해 지역에서의 인적 교류는 어응신(魚應辰)을 중심으로 관계망을 형성했을 뿐이다. 그에게 있어서의 어응신은 절친한 벗이었다.

어응신이나, 아니면 어응진이나 하는 표기의 형태는 책마다 다르다. 어응진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다. 신으로도 읽히고 또 진으로도 읽히기도 한 글자 ‘辰’은 모두 별을 뜻한다. 그 시대에 어떻게 읽혔느냐 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어응신의 형이 어응성(魚應星)이란 사실이 해결의 한 단초가 된다. 어응진의 ‘신’ 자는 ‘星辰’을 염두에 둔 신 자이다. 오늘날 ‘星辰’을 ‘성진’이라고 읽지 않는다. ‘일월성신’이니 ‘성신의 변화’라고 하듯이, ‘魚應辰’이 ‘어응신’으로 읽혀져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조식의 시 중에서 어응신과 관련된 시 두 편이 있다. 7언시 「궂을 두고 읊음(詠橋)」은 어응신과 조식이 반반으로 나누어 쓴 공동작이고, 또 다른 7언시 「명월사에서 독서하는 유계선과 어사공에게 부침(寄柳繼先魚士拱明月寺讀書)」은 절에서 과거공부를 하는 어응신에게 보낸 편짓글 형식의 시이다. 어사공(魚士拱)은 어응신을 말하며, 유계선(柳繼先)은 그의 매형인 유송종(柳嵩宗)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생들의 과거공부는 일반적으로 조용한 사찰에서 이루어졌다. 명월사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당시 김해 지역의 사찰이었다. 조식은 이들에게 보낸 시에서 ‘과거에 합격하면 어떻고 떨어지면 어떠리? (一插何如決一叉)’ 하면서 조금한 마음을 달래주려고 했다.¹⁵⁾ 결국 유송종은 진사시에 합격하고, 어응신은 생원시에 합격한다.

조식과 어응신은 조식의 김해 시절 이전에 만났거니와, 두 사람은 김해에서 친분이 더욱 깊어졌다. 조식이 김해를 떠나서도 우정은 존속한 것으로 보인다. 1552년에 어응신의 어머니가 상을 당하였을 때, 그는 비문(碑文)을 지어주기도 했다. 비문의 국역문이 『남명집』에 실려 있다. 이 비문의 서두를 보면 조식의 산문적인 문식(文飾)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한다.

난(鸞)새와 봉황(鳳凰)은 깃을 감추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다. 다만 그옥한 난초는 깊은 골짜기에 있어 나무꾼 중에 본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도 있다. 어대부(魚大夫) 집의공(執義公)이 조정에서 드날린 것은, 봉황이 높이 나는 것과 같아, 사람들이 다투어 구경을 한다. 그러나 백씨(白氏)가 그 부인이 되어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그 가문을 엄격히 다스린 것은, 아는 사람

15) 같은 책, 66-67면 참고.

이 드물다. 더구나 부인은 밖의 일은 간여하지 않은 법이니, 제사를 받들고 옷을 마련하며, 아랫사람들에게 따듯이 대해주고 손님 접대를 정성껏 한 것은 부인이 집안에서 하는 일이니,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

내가 뜰에서 대부에게 절을 하고 또 당하(堂下)에서 부인을 배알한 적이 있었는데, 풍겨 오는 덕의 향기가 난초와 같았다. 훌륭한 인품은 남의 도움이 필요치 않았으니, 대부공의 배필이 된 것은 제대로 된 일이고, 여수(麗水-중국 절강성에 있는 강 이름으로서 옥의 산지로 유명하다 : 인용자)에서 진주(眞珠)가 나듯이 그가 훌륭한 아들을 낳은 것 또한 마땅한 일이다.¹⁶⁾

-魚執義夫人白氏碑文, 국역문(부분)

어대부 집의공은 어응신의 아버지 어영준(魚泳濬)을 말하며, 백씨는 그의 어머니를 가리킨다. 백씨 부인이 평소 유교적인 여인의 이상적인 인품임을 찬양하면서 추모한 이 글은 조식의 시대적인 여성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조식이 이 글에서 백씨 부인이 향년72세로 김해 옛집에서 일생을 마쳤다고 한 것으로 보아 부인의 고향이 김해가 아닌가 여겨진다.

앞에서 살펴 본 바 있었듯이, 조식은 김해에서 사림(士林)의 후배인 정유길(鄭惟吉)을 만났다. 그는 영의정을 지낸 연로한 조부를 아침저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김해에까지 따라왔다. 그런데 조식과 정유길의 친분 관계에 어응신이 가세되었던 것이다. 세 사람은 한 해 남짓 친분을 유지했다. 결국, 조부인 정광필이 김해의 귀양살이로부터 해배되었을 때, 정유길 역시 서울로 떠날 수 밖에 없었다. 그가 다시 서울로 돌아갈 때 조식은 그에게 이별의 시 한 편을 주었음을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이 대목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사실은 정유길이 김해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조식뿐만 아니라 어응신과도 친교를 가졌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응신의 아버지인 어영준의 묘갈명(墓碣銘)을 쓴 일이 있다. 언제 썼느냐 하는 시기의 문제는 잘 알 수가 없으나, 이 글은 『국조인물고』에도 실려 있다.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6) 같은 책, 220-221면.

기축년(1529) 가을 8월 24일에 질병으로 서울에서 졸하였으니, 향년이 47세였다. 부음을 듣는 날에 종족들이 슬피 울부짖고 동료들은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다. 아들들이 영구를 받들어 모시고 남녘으로 돌아 왔으니, 염습에서부터 이 운구하는 데 이르기까지 모두가 조종에 함께 했던 사대부의 힘으로 도움을 받았다.

선생은 부드럽고 인자하며 화기로운 행실을 갖추고 마음을 잘 다스리며 담았고, 청렴결백하며 굳센 의지로 덕을 발휘하여 외부로 아름다움이 뚜렷하였다. 비록 좌우를 잘 살펴 봉양해도 오히려 어긋남이 있는가 두려워했고, 비록 초야에서 한가롭게 지내면서도 오히려 나라를 잊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선생이 부모를 받들며 임금을 섬긴 대략의 내용이다. 친속(親屬)들은 그 선량한 덕을 좋아하여 나아갔고, 향리(鄉里)에서는 그 아름다운 풍속을 이어받아 마음을 고친 자가 더러 있기도 하였다.¹⁷⁾

—魚泳潛墓碣銘(부분)

이 묘갈명이 언제 쓰이었는데는 잘 알 수 없지만, 여러 정황들을 추리해볼 때 정유길이 김해에 있을 때 썼을 경우가 가장 타당해 보인다. 아울러 그의 조부인 정광필 역시 귀양살이를 하던 가운데 김해의 풍속과 경관에 관한 내용의 연작(連作)의 한시인 「유배(流配)」를 쓰기도 했다.

지금까지 본 어씨(魚氏) 집안은 평안도 함중(咸從)이 연원이다. 함중 어씨는 영남으로 내려와 뿌리를 내렸는데, 주로 고성, 함안, 김해에서 살았다. 조선조 초기에 있어서의 집안의 중심인물은 대구현령을 지낸 어연(魚淵)이다. 그는 고성에서 살다가 함안으로 장가를 들었다. 여기에서 아들 다섯 명을 두었는데, 장남 어변갑(魚變甲)은 문과에 급제해 관이 집현전 직제학에 이르렀으나, 신병으로 관직을 중도에 그만두고 함안으로 스스로 낙향했다. 그의 손자 중에 관인으로 고관의 위치에 오른 이로는 홍문관 대제학과 좌의정을 역임한 어세겸(魚世謙), 4조 판서와 우참찬을 두루 역임한 어세공(魚世恭) 형제가 있다.

한편, 어연의 아들 가운데 김해로 장가를 든 어변문(魚變文)은 김해 지역

17) 『국역 국조인물고』, 제14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3, 117-118면.

어씨 가문의 입향조가 되었다. 이때부터 최소한 6대에 걸쳐 김해의 향촌 사회에 어씨가 뿌리를 내렸던 것이다. 요컨대 함중 어씨는 조선 전기 2백년에 걸쳐, 즉 15, 6세기에 지금의 경남 지역의 최고 명문이었으며, 김해 향촌 사회(사)의 형성에도 이 시기에 크게 기여한 집안이다.

김해 입향조인 어변문의 아들인 어효선은 대마도로 가는 사신을 수행하다가 파선(破船)으로 객사했고, 그 아들 어한륜은 무관 정4품의 품계인 소위장군(昭威將軍)에 이르렀다. 또 그 아들인 어영준은 내외직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종3품의 집의(執義)에까지 나아갔으나 47세에 급서했다. 아마도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인 듯하다. 정유길의 묘갈명 이전에, 이미 주세붕(周世鵬)의 묘지(墓誌)가 작성되었었다.¹⁸⁾ 어영준의 족인(族人) 가운데 현저한 인물로서, 퇴계 이황의 스승인, 3종(8촌) 형제 어득강(魚得江)이 있으며, 그의 아우 영해와 그의 아들 응성·응신은 생원시에 급제하였으나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김해 향촌의 유풍(儒風)을 진작시켰다.

정유길의 상기 묘갈명에, 어응신의 네 아들 중에서 장남인 어몽뢰에 관하여 ‘업문유성(業文有聲)’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기존 국역문은 이를 두고 ‘학문을 익혀 명성이 난’¹⁹⁾으로 풀이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문장을 필생의 업으로 삼을 만큼 명성이 있었던’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야 할 것은 어응신의 질서(姪壻)인 진극인(陳克仁)과, 김해 관노 출신 어머니 때문에 평생 불우하게 살다가 사후에 조선시대 최고의 저항시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어무적(魚無迹)에 관한 얘기다. 함양에서 태어나 처향 김해로 장가를 든 진극인은 결국 김해에서 죽었다. 그는 김해의 향촌 선비로 살아온 듯한데, 조식이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며 만시(輓詩)를 쓰기도 했다. 시인 어무적은 김해의 향촌 인물로서 크게 재평가될 사람이다. 그의 행적에 관해 읍지(邑誌)에 아주 소략하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자는 잠부(潛夫), 호는 낭선(浪仙)이다. 김해부의 관노로 면천되었다. 기재(奇才)가 있어 시에 능하니 부사(府使)의 탐종(貪縱)을 나무라고 비방하여 읍은 시

18) 『김해인물지-보유편』, 김해문화원, 2002, 35면, 참고.

19) 『국역 국조인물고』, 앞의 책, 118면.

가 있으므로 부사가 체포하려 한 즉 다른 고을로 도피하다가 객사하였다. 국조 시산(國朝詩刪)에 그의 유민탄(流民歎)이 실려 있는데 당시 사회의 혼란과 창생(蒼生)이 도탄에 빠짐을 슬퍼한 것이다.²⁰⁾

저항시인 어무적은 함중 어씨 김해 입향조인 어변문의 서손(庶孫)이며, 어영준의 서당숙(庶堂叔)이다. 함중 어씨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지금의 경남 지역을 벗어나 여기저기로 출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이후로 가세(家勢)가 응집되지 않고 분산된 것이 아닌가 한다. 아직까지 집향촌을 이루고 있는 곳은 경남 거창군 가조면이라고 한다. 경남 지역에 남아 있는 재지 세력의 후손으로 알려진 최근의 명사로는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낸 어운대(창원)와 경찰총장을 역임한 어청수(진주) 등이 있다.

6. 남는 말 : 조식의 시문(詩文)과 장소감

조식의 시문에 나타난 김해의 지역적 성격을 밝힌다는 사실은 소위 ‘남명학’ 연구 중에서도 매우 지역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까지의 소위 남명학이라는 것은 유학, 역사학, 교육철학 등의 분야 등에서 집중적으로 천착되어 왔다. 이에 비해 본고의 개별성은 주류 남명학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온 문학과 지역학의 간(間)학문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려고 한 데 있다.

이와 같이, 조식의 시문에 나타난 김해의 지역적 성격은 공간과 장소, 나아가 장소성과 장소감에 관한 비평적인 담론이 아니어서 안 될 것이다.

주지하듯이, 공간이 물리적으로 존속하는 개념이라면, 장소는 공간에 사람이 있음으로써 의미가 창출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는 시간이 개입된 공간이며,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공간이다. 장소성이란 것이 장소가 다름 아니라 자아의 몸이 존재하고 체험하는 현상학적인 공간이다, 라는

20) 『김해인물지-보유편』, 앞의 책, 35-36면.

관념이 빛은 결과라면, 이른바 장소감(sense of place)은 공간을 통해 자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특정한 공간에 자신만의 주관적인 감정을 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식의 시문에 반영된 김해 지역의 장소감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자신이 현존하는 존재라는 자각과 함께,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자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놓여 있었던 것이다.

조식은 사림이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았던 사화(士禍)의 시대와, 사림이 정치적인 기득권을 온전히 장악한 봉당(朋黨)의 시대, 그 과도기에 살았다. 그가 살던 이 시대에는 마치 별과 별자리가 줄을 지어 펼쳐 있는 것처럼 많은 선비, 유학자들이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시대에 형성해 있던 사림에도 출처의 뜻은 서로 엇갈려 있었다. 이언적·주세붕·이황 등은 관인으로서 세계에 출(出)하였고, 서경덕과 그 자신은 자연(산림)에 처(處)하였다. 그가 동시대의 선비 중에서 서경덕을 가장 존경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는 김해 향촌에서 제 나름의 사회적인 연대 공간을 구성했으며, 나아가 밀양의 신계성과 합천의 이회안과는 점조직의 교우 관계를 형성했다.

그는 말하자면 욕심과 야심으로 들떠 있는 정치권력의 세계, 그 ‘세계 내적 존재(In-der-Welt-sein)’로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로부터 벗어나 김해 향촌에 들어 와서 산과 바다 사이의 장소(성) 속에서 숨어 사는 자로서 거주하는 자연, 그 ‘자연 내적 존재(In-der-Natur-sein)’로 현존할 것을 기대해 마지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장소 기대감이 그의 시문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본 연구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ABSTRACT]

Local Character of Kimhae Shown to the Poetry and Prose of Cho
Shik

Song, Hui-bog
Jinju National Univ. of Education

This research is about the part of the life of Cho Shik who is a Confucian scholar of Chosun dynasty. The subject of this paper is local character of Kimhae shown to his poetry and prose.

There are lots of 'Sanhaejung(山海亭)' meant mountains and sea in his poetry, which are hypothetical resting places, used as poetic material of his poetry. They reflect his value and attitude of life as a rural scholar who reads books and studies without taking any government jobs.

In his prose, local cultur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re shown through historical remains and real life of people lived in Kimhae, remote region from Seoul.

In his poetry and prose written during Kimhae period, we can see so called 'the sense of place' projected by his subjective emotions toward specific place, and his identity while living his time.

Key words : Cho Shik, Kimhae, Sanhaejung, a rural scholar, local character, local culture, the sense of place.

참고문헌

- 『국역 국조인물고』, 제14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3, 117-118면.
- 김낙진 외, 『조식의 생애와 사상』, 진주교육대학교, 진주문화교육연구원, 2001, 29-31면.
- 『김해인물지-보유편』, 김해문화원, 2002, 35면.
- 민궁기 역주, 『역주 김해읍지』, 도서출판 누리, 2014, 154면.
- 박기용, 『두류산 양당수를 예 들고 이제 보니』, 진주교육대학교, 진주문화교육연구원, 2002, 63면.
- 송희복, 「남명 조식의 문학사상에 관한 한 고찰」, 진주교대 부설 진주문화연구원, 『진주문화』, 제16집, 2002, 38면.
- 송희복, 「경남의 지역문학과 아나키즘의 상관성」, 『국제언어문학』 제27호, 국제언어학회, 2013.04, 53-82면.
- 이병태, 「신산서원의 복원문헌」, 『김해문화』, 제17집, 김해문화원, 1999, 30면.
- 정우락, 『남명문학의 철학적 접근』, 박이정, 1998, 359면.
- 조식 지음,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편역, 『남명집』, 이론과실천, 1995, 38면.
- 허경진 옮김, 『남명 조식 시선』, 평민사, 2008, 20면

이 논문은 2016년 06월 30일 접수되어 07월 29일까지 심사받아 08월 5일 게재 확정됨.

